

## 피아니스트 탁영아

“격정과 우아함의 감동적인 조화” (San Antonio Express-News), “열정, 상상력, 진실함이 어우러진 최상의 조화” (New York Concert Review) 라는 평을 받으며 미국을 중심으로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피아니스트 탁영아는 줄리어드 심포니와 링컨 센터에서의 협연으로 뉴욕에 데뷔하였으며 뉴욕 WQXR, 필라델피아 WRTI, 시카고 WFMT, 클리블랜드 WCLV, 볼티모어 WBJC, 캐나다 CKWR, 그리고 한국 KBS 등의 라디오 방송과 미국 케이블 TV the LOOP, 아르떼 TV 등에서 연주가 중계되었다.

9 세 때 부산시향과의 협연을 시작으로 폴란드의 Filharmonia Pomorska, 루마니아의 Oltenia Philharmonic Orchestra, North Arkansas Symphony, Roanoke Symphony Orchestra, Venice Symphony Orchestra, Lansing Symphony, Orchestra of Northern New York, Crane Symphony Orchestra, Imperial Symphony, 코리안 심포니, 성남시향, 울산시향, KNN 방송교향악단 등 유수의 오케스트라와의 활발한 협연을 가진 탁영아는 뉴욕 카네기홀 웨일홀, 링컨센터, 워싱턴 케네디 센터, 필라델피아 키밀 센터, 보스턴 조단홀, 미시건 Wharton Center 등 해외 주요 공연장에서의 연주로 호평받은 바 있다. 필라델피아 챔버뮤직 소사이어티, 시카고 Myra Hess 콘서트 시리즈, 콜롬비아 대학, 부산국제음악제와 통영국제음악제등에서의 초청독주회로 주목받은 바 있는 탁영아는 야마하 그랜드피아노 페어, LG 아트센터, 예술의전당 IBK 홀, 호암아트홀, 부산문화회관 기획 ‘콘체르토 페스티벌’, 을숙도 문화회관의 명품콘서트, 음연초청 피아니스트 문용희와의 듀오연주, 부산대학교 초청독주회 등 국내에서도 폭넓고 활발한 연주로 관객과 만나왔다.

한편, 실내악에서도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탁영아는 Robert Mann, Bonnie Hampton 등의 저명한 연주자와 함께 연주한바 있으며 현재 Marinus 앙상블 멤버로 활동하고 있다. 뉴욕 링컨센터 주최 ‘An Evening of Chamber Music’ 시리즈와 세계적인 실내악 페스티벌 Ravinia Festival, Music@Menlo 등에서의 초청 연주를 비롯, 통영국제음악제에서 독일 말롯퀸텟 (Ma’a lot Quintet)과의 협연,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개관기념 페스티벌 초청연주, 영화의전당 두레라움 실내악축제 등에서 연주하였다. 또한 뉴욕 현대음악 시리즈 *Sequenza 21* 과 *Piano Century*에서 연주와 더불어, 작곡가 Judith Zaimont 의 초청으로 그의 작품 *Wizards* 를 음반으로 제작함으로써 현대음악 부문에서도 큰 역량을 선보이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만의 음악적 색채를 선보이며 주목받고 있다.

미국 San Antonio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2 위 입상과 함께 ‘Best Performance of a Classical Work’ 특별상 수상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발세시아-무지카 국제 콩쿠르, 독일 에틀링겐 국제 피아노 콩쿠르, 윤이상 국제음악콩쿠르, 미국 힐튼 헤드 국제 피아노 콩쿠르, 남미주리 국제 피아노 콩쿠르, 콜퍼스 크리스티 국제 콩쿠르 등에서도 상위 입상하며 눈부신 음악적 성과를 보여주었다.

예원학교를 거쳐 서울예고 재학 중 미국으로 건너가 줄리어드 음대를 L.&M. Burle 장학생으로 졸업 하고,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에서 총장 장학금 수혜자로 석사학위와

디플로마를 취득하였다. (김영호, 문용희, 마틴 캐닌, 변화경, 리셀 셔먼 교수 사사) 이후 피바디 음대에서 레온 플라이셔 교수 지도아래 박사학위를 취득한 탁영아는 박사과정 중 피바디 음대 예비학교와 플로리다 사우스이스턴 대학 음대 교수를 역임하며 후학양성에도 열정을 쏟았다. 현재 뉴욕주립대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Potsdam) 음대 교수이자 피아노과 과장으로 재직중인 탁영아는 크레인 국제 피아노 음악제 (Crane International Piano Festival) 의 총감독으로도 활동중이다.

“세련되고 진지한 피아니스트 (Gramophone)”, “서양 음악의 요소들이 예술적 감동을 위해 최적화된 상태로 담겨 있는 듯한 연주 (International Piano),” 라는 평을 받은 탁영아의 연주는 Albany Records 에서 발매된 음반 *Pure Colors* 에서도 감상할 수 있으며, 미국 MSR Classics 에서 발매된 솔로 앨범은 미국과 영국 유수의 리뷰지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또한 스타인웨이 스피리오 (Spirio) 카탈로그에 연주가 등록되었으며, 최근에는 Steinway & Sons 레이블에서 베토벤 솔로 앨범이 출시되었다. [www.youngahtak.com]